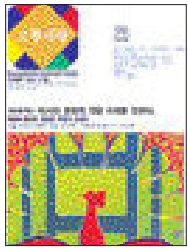


고향사랑 2006년 봄호

‘아시아 문화의 전당’ 등 특집

고향사랑회(회장 강봉규)가 제간 고향사랑 2006년 봄호를 펴냈다. 특집으로 소설가 문순태 씨, 강연회 화백, 박정희 조산대 교수 등이 참석한 ‘아시아 문화의 전당 이대론 안된다’를 특별 좌담으로 실었다.



박진현 광주일보 문화생활부장의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 프로젝트 어떻게 추진되나’ 특별기고와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을 초 작고한 오승운 화백을 기리는 허영만 시인의 추모시와 문화평론가 김종희의 추모평론도 게재했다.

연재기자 penfoot@kwangju.co.kr

마을사람들이 직접 쓴 마을이야기

‘호남명촌 구림’ 나와

영암군 구림면 구림(鳩林·비둘기 숲)마을은 우리나라 5대 명촌(名村) 중 하나로 꼽힌다. 구림이 낳은 유명한 인물은 왕인박사, 도선국사 등.



4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대동계(大洞契)와 주민자치의 중심이 된 6대 성씨(남주 최씨, 함양 박씨, 창녕 조씨, 해주 최씨, 선산 임씨, 연주 현씨)는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최근 구림 사람들이 직접 쓴 마을이야기 ‘호남명촌 구림’이라는 책이 나왔다. 책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과 구림 현지의 주민들이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경비를 모금, 2년6개월에 걸쳐 자료를 조사하고 원고를 집필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가야금 교수 음악회

오늘 전남대학교 예술대 연주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제9회 가야금 교수 음악회가 24일 오후 7시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전남대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 성심은·성애애(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이수자)씨를 비롯, 이영아·황은숙·정윤혜·강혜경씨가 출연, 전통곡과 창작곡을 들려준다. 장교 반주는 김동현씨(광주교육대 교수)가 맡는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고흥 안동고분 발굴 이어 나주 영동고분 추가발굴

호남 고대사 실마리 찾아라

전남 지역에서 획기적인 고분 발굴이 잇따르면서 호남 고대사 조망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추가 발굴 성과를 올리고 있는 나주 영동고분과 발굴 중인 고흥 안동고분(熊洞古墳)은 호남 고대사는 물론 한국 고대사 연구에 귀중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산대학교 문화박물관 이정호 교수는 23일 “나주 영동리 고분군 1호분에서 쌍실형 묘실과 인골, 철제관모, 과대교구(학대의 버클)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5~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나주 다시면 영동리 고분군은 지난 1월 1호분 발굴사업(합동시착실분)과 석곽묘(돌덧널무덤)에서 무려 15개의 인골이 출토돼 화제를 ‘깜짝’ 놀라게 했던 곳이다.

이번에 확인된 쌍실형 묘실(雙室形墓室)은 하나의 석실을 조성한 뒤 그 안에 대형 관석을 세워 석실을 두 개의 방으로 나눈 형태로, 각각 석실에 2개 이상 인골이 드러났다.

발굴팀은 백제의 묘제에서는 이 같은 형태가 드문 점으로 미뤄 기존 나주 흥덕리 고분에 이어 이번 쌍실형 묘실의 발굴이 마한의 사회체제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사료로 보고 있다. 즉, 6세기 중반에 영산강 유역이 백제에 복속된 이후에도 고대 수장세력은 독립된 매장제도를 유지하는 등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제 관모와 과대교구의 주인은 백제로부터 통치권을 인정받은 마한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실 내부의 유물과 유물 일부가 훼손되고 흩어져 있는 상태로 미뤄 아쉽게도 이 고분이 20여년 전에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 교수는 “본격 발굴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인골들을 DNA분석할 경우 서로 어떤 혈연관계였는 지와 고대 지배세력의 권력계승 형태 등 당시의 사회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지난 3월 금동관모와 금동신발이 출토된 고흥 안동고분도 화제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안동고분은 유물공개 이후 문화재청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정받은 마한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실 내부의 유물과 유물 일부가 훼손되고 흩어져 있는 상태로 미뤄 아쉽게도 이 고분이 20여년 전에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 교수는 “본격 발굴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인골들을 DNA분석할 경우 서로 어떤 혈연관계였는 지와 고대 지배세력의 권력계승 형태 등 당시의 사회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지난 3월 금동관모와 금동신발이 출토된 고흥 안동고분도 화제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안동고분은 유물공개 이후 문화재청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정받은 마한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실 내부의 유물과 유물 일부가 훼손되고 흩어져 있는 상태로 미뤄 아쉽게도 이 고분이 20여년 전에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 교수는 “본격 발굴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인골들을 DNA분석할 경우 서로 어떤 혈연관계였는 지와 고대 지배세력의 권력계승 형태 등 당시의 사회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지난 3월 금동관모와 금동신발이 출토된 고흥 안동고분도 화제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안동고분은 유물공개 이후 문화재청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정받은 마한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실 내부의 유물과 유물 일부가 훼손되고 흩어져 있는 상태로 미뤄 아쉽게도 이 고분이 20여년 전에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 교수는 “본격 발굴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인골들을 DNA분석할 경우 서로 어떤 혈연관계였는 지와 고대 지배세력의 권력계승 형태 등 당시의 사회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지난 3월 금동관모와 금동신발이 출토된 고흥 안동고분도 화제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안동고분은 유물공개 이후 문화재청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정받은 마한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실 내부의 유물과 유물 일부가 훼손되고 흩어져 있는 상태로 미뤄 아쉽게도 이 고분이 20여년 전에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쌍실형 묘실이 추가발굴돼 화제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주 다시면 영동리 고분.

쌍실형 묘실·철제관모·과대교구 등 확인

안동고분 전남동부고대사 연구 귀중한 단서

연구에 한 획을 긋는 커다란 성과다. 전남 동부 지역은 반남 고분군 등에 대한 발굴로 마한문화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주에 비해 미발굴 유물이 없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었기 때문.

그동안 뚜렷한 위세를 드러내지 않았던 동부지역은 나주를 중심으로 한 영산강 문화권과 달리 5세기까지도 자체적인 지역연맹체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화제의 지배적인 인식이었다. 따라서 추가 유물 발굴은 물론 고분의 축조방식, 규모 등 전모가 파악될 경우, 매장 주체세력과 그 세력의 생활상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고분은 문화재적 가치를 떠나 고흥, 순천, 여수 등 전남 동부지역 고대사

연구에 한 획을 긋는 커다란 성과다. 전남 동부 지역은 반남 고분군 등에 대한 발굴로 마한문화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주에 비해 미발굴 유물이 없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었기 때문.

그동안 뚜렷한 위세를 드러내지 않았던 동부지역은 나주를 중심으로 한 영산강 문화권과 달리 5세기까지도 자체적인 지역연맹체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화제의 지배적인 인식이었다. 따라서 추가 유물 발굴은 물론 고분의 축조방식, 규모 등 전모가 파악될 경우, 매장 주체세력과 그 세력의 생활상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고분은 문화재적 가치를 떠나 고흥, 순천, 여수 등 전남 동부지역 고대사

시는 이상주의를 연 연구자로, 라벨은 드뷔시의 전통을 이어 투망하고 동향적인 음악을 선보여온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드뷔시의 ‘어린이 세계’ ‘기쁨의 섬’ ‘집주곡 1·2집’, 라벨의 ‘물의 회랑’, ‘피아노를 위하여’ 등이다.

▽광주공연 일정
●24일=윤경은·이영·임리라·이상복·이태은 ▲25일=이주희·황선숙·문현숙·윤수영 ▲26일=이영아·김은아·권현진·이주영·홍보원·문재연 ▲27일=차민아·하성숙·문정화·김은영·김정영·김미경·김경애 ▲28일=황자영·김정선·함지연·조현영·한승희·배민화·김정아·이태은

문의 0502-222-2220, 062-525-6868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이상주의 대가 드뷔시·라벨 탐구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 28일까지 정기연주회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인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이태은 전남대 교수·사진)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1~2명의 작곡가를 선정, 그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무대에 올리고 있다.

공연에 참가하는 30여명의 피아니스트들은 정해진 작곡가의 곡을 새롭게 연구하고 선의 경쟁을 통해 각각 자신만의 피아노곡을 뽑아내곤 한다.



집중탐구한다. 이상주의는 사물이나 풍경의 이미지를 음으로 그대로 그려내는 음악으로 드뷔시와 라벨을

24~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드림아트홀에서 열리는 제10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이상주의의 대가로 꼽히는 드뷔시와 라벨을 집중탐구한다. 이상주의는 사물이나 풍경의 이미지를 음으로 그대로 그려내는 음악으로 드뷔시와 라벨을 음으로 그대로 그려내는 음악으로 드뷔시와 라벨을

24~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드림아트홀에서 열리는 제10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이상주의의 대가로 꼽히는 드뷔시와 라벨을 집중탐구한다. 이상주의는 사물이나 풍경의 이미지를 음으로 그대로 그려내는 음악으로 드뷔시와 라벨을

24~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드림아트홀에서 열리는 제10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이상주의의 대가로 꼽히는 드뷔시와 라벨을 집중탐구한다. 이상주의는 사물이나 풍경의 이미지를 음으로 그대로 그려내는 음악으로 드뷔시와 라벨을

24~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드림아트홀에서 열리는 제10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이상주의의 대가로 꼽히는 드뷔시와 라벨을 집중탐구한다. 이상주의는 사물이나 풍경의 이미지를 음으로 그대로 그려내는 음악으로 드뷔시와 라벨을

24~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드림아트홀에서 열리는 제10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이상주의의 대가로 꼽히는 드뷔시와 라벨을 집중탐구한다. 이상주의는 사물이나 풍경의 이미지를 음으로 그대로 그려내는 음악으로 드뷔시와 라벨을

24~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드림아트홀에서 열리는 제10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이상주의의 대가로 꼽히는 드뷔시와 라벨을 집중탐구한다. 이상주의는 사물이나 풍경의 이미지를 음으로 그대로 그려내는 음악으로 드뷔시와 라벨을

24~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드림아트홀에서 열리는 제10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이상주의의 대가로 꼽히는 드뷔시와 라벨을 집중탐구한다. 이상주의는 사물이나 풍경의 이미지를 음으로 그대로 그려내는 음악으로 드뷔시와 라벨을

24~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드림아트홀에서 열리는 제10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이상주의의 대가로 꼽히는 드뷔시와 라벨을 집중탐구한다. 이상주의는 사물이나 풍경의 이미지를 음으로 그대로 그려내는 음악으로 드뷔시와 라벨을

Review ‘이 무지치’ 실내악단 광주공연

비발디 ‘사계’의 최고봉 클래식 팬들 환희·감동

비발디의 ‘사계’는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곡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사계’하면 바로 떠오르는 연주단체가 1952년 창단된 실내악단 ‘이 무지치(I MUSIC)’. 그들이 수차례 녹음한 ‘사계’ 음반은 8천만장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다.

지난 22일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린 이 무지치 실내악단의 연주회는 ‘대가(大家)의 명성’을 유감 없이 보여준 무대였다. 30~70대까지 12명의 연주자들은 풍부한 선율과 뛰어난 테크닉으로 1천여명의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보케리아의 ‘미뉴에트’ 등 친숙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얻은 ‘이 무지치’는 파야의 ‘스페인 춤곡’, 몬타의 ‘차르다슈’ 등 다양한 소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멤버 중 가장 젊은 안토니오 안셀미(38)가 독주 부분을 맡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을 위한 변주곡 ‘베네치아의 카니발’은 독주 바이올린의 화려한 테크닉과 자유로움을 유감 없이 발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 산들바람처럼 몰아치던 ‘타란텔라 이야기’, 12인조 이상의 파와와 풍성함이 느껴지던 피아졸리의 ‘리베르 춤곡’ 등도 인상적이었다.

2부에서 연주된 ‘사계’는 그들이 왜 ‘비발디 사계’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지 생생히 보여준 무대였다. 리더를 맡고 있는 안토니오 살바토레의 바이올린 연주로 서로 주거나 받

거니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연주는 오래 숙련된 연주단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창단멤버인 73세의 루치오 부카렐라를 비롯, 60대가 훌쩍 넘은 연주자들의 진지한 공연 모습은 연주자들에게 감동이었다.

2~3차례 사진을 찍거나, ‘사계’ 연주 중 악장 사이 일부가 박수를 치기도 했지만 관람객들의 감성 태도도 좋았다. 특히 다소 알찬 것으로 여겨졌던 3곡의 악장을 3곡의 악장곡을 선사했고 팬 사인회에 400여명의 팬들이 몰려들었다.

이번 무대는 ‘광주에서 클래식 공연을 할때는 인식이 퍼져 있는 탓에 수년만에 열린 외국 정상급 악단의 공연이었다. 광주 공연의 개런티는 약 2천500만원선. 국내 10여개 도시 순회연주와 중국 연주 일정

이 함께 잡혀 있어 상대적으로 개런티가 낮아 가능했던 공연이었다. 하지만 이날 판매된 유료 티켓은 약 700여장. 전주나 대전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였다. 기획사측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방송사가 진행한 행사라 그래도 나는 편이었다”며 “이 정도의 티켓 판매로는 클래식 공연을 유지하기 난감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22일 공연 후 이 무지치 사인회가 열린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는 400여명의 팬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정우부동산
☎ (TEL) 671-0823, 011-677-2213
(전남동 대학로교차로 동성고교로사거리)

주거지 130평 근대
·월산동 40M 도로변 단독주택(직사각형)
·평면적 6000평방 30M×40M도부부근
·분할 2천2천 2천2천평
·분할 2천2천 평 2천2천 평 2천2천 평
·분할 2천2천 평 2천2천 평 2천2천 평

나주 권동동 배밭 1900평
·15년대 대량지분 평방 1326평
·세지교사실 거주 2천2천평
·교사실 거주 부근 일야 관리지역 2323 평 평방 2천2천 평

전남개발농장 및 투자용 빌라 410평
·화순읍 세평리(삼거리부근) G/B빌 (남향, 개죽) 평방 1220평

주말농장 및 묘지용 410평
·화순읍 세평리(삼거리부근) G/B빌 (남향, 개죽) 평방 1220평

가죽주머니 408평
·광산 내산동(관리지역) 차장원, 남향 평방 1220평

전원농장 1200평 근대
·영광 묘향 산책리(교수장 1200평 유실 수목정원수 다량 식재)매지가 6200평

주거지 245평 근대
·문성동(12M도로변) 평방 1900평 원형, 교각, 학교원

묘지용 일야 3800평 근대
·광산 송마리 관리지역 일야 평방 3800평

장성 개리밭 4270평 근대
·광산 송마리(관리지역) 차장원, 남향 일야 개리밭 평방 4270평

묘지용 일야 3800평 근대
·광산 송마리(관리지역) 차장원, 남향 일야 개리밭 평방 4270평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방문
www.jwrealty.com

한국공인중개사
☎ (TEL) 962-7100 (TEL) 010-4325-1323
(신성지구 신기중학교 옆)

장성지역
▶공부지, 불류참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시는 평수대로 가능
※ 지면관계상 물건 올리지는 못합니다.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
●대지 약 3000평
●건물 1-철골조 2층 437평
●건물 2-철골조 248평
매매가 12억(철골조 가능)

장성군 황룡,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구함.

대인부동산
FAX 373-6885

교원전문
목적별 임대 상가 지분 아파트
011-684-7774

방매매
●송정동 시리병원앞
4차선 도로변 사거리코너 대지 400평 평방 2500평
●산정동
·하남대지구역 88M도로변 6차선 계획도로변, 자연녹지 7800평 평방 70만 평, 관공, 관매, 관매
●연제동
·대주이파트 정원상 상업지역 200평 × 400만 4차선도로변(상가, 평원지분)
011-625-0510

교원
●모리·임야·방 교원물건구함
016-9630-6699

엑스포공인중개사
☎ (TEL) 351-5155, 010-9455-2200
(월산동 남정호에서 죽령리 중간사거리)

아름다운부동산
무로 ☎ 080-729-4989
010-3162-4989

상가건물
·상주지구 보동동 3억 원 월세 720만원 매매가 17억 원
·북구 신안동 보동동 1억 원 월세 400만원 매매가 7억 5천만원

모텔매매
·상주지구 좌실 40개 보증금 3억 5천만원 월세 1,100만원 매매가 21억 5천만원

병원부지
·상주지구 1500평 2000평 4600평 하남지구 240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공장부지
·담양군 대덕면 소재지 관리지역 일야 14,000평 매매가 평당 10만원

전원주택용지
·광산군 오음동 산내리 대지 1700평 매매가 3,700만원

물류창고용지
·광산군 운남동 상삼리 아파트 2차선 도로변 평당 7000평 매매가 평당 90만원

묘지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일야 5000평 매매가 평당 15만원

국민공인중개사
☎ (TEL) 872-4585, 011-804-6205
(월산동 부림ALC빌딩 사거리)

국민공인중개사
☎ (TEL) 872-4585, 011-804-6205
(월산동 부림ALC빌딩 사거리)

국민공인중개사
☎ (TEL) 872-4585, 011-804-6205
(월산동 부림ALC빌딩 사거리)

부동산 광산공인
☎ 062962-3114
018-630-7800, 011-295-8394
(www.r114.net, 062962-3114) 광산공인

신성지구 토지매매 (다량보유)
▶근세 1500평 660만
▶상원동지 137평 750만
▶일야부지 65-75평 250-350만

수원지구 토지매매 (다량보유)
▶근세, 상업, 준주거용지 매매가능
▶월산동지 1400평 대토면적
75, 88, 95, 102평 280-400만
▶월산동지 1400평 대토면적
74, 88, 96, 106평 2195-250만

투자용, 사업성 토지 (다량보유)
▶내주지 일야 4000평 4차선 7000평
▶관리지역 일야 5000평 4차선
▶관리지역 일야 5000평 4차선
▶관리지역 일야 5000평 4차선

수익성 상가건물 매매
▶북구 지하1층 지상6층 60여
▶지점 년수익 18~22억 이상
▶지점 년수익 1억3천 이상
▶지점 년수익 1억3천 이상
▶지점 년수익 1억3천 이상
▶지점 년수익 1억3천 이상

공공, 물류, 주유소부지 등구함
(매수, 매도, 상가인대, 사업구함)

귀하의 부동산 전문컨설턴트
항상 고객을 베스트로 모시겠습니다